

한스바이오메드 (042520)

Corporate Day 후기: 운이 트이는 시기다

셀르디엠이 견인하는 신규 성장 국면

한스바이오메드는 1999년 설립 이후 인체조직 기반으로 성장해왔으며, 뼈이식재·피부이식재·민트실이 주요 제품군이다. 2020년 벨라젤 이슈 이후 인체조직 및 민트실 중심으로 안정적인 외형을 이어왔다. 올해 9월 22일 출시된 ECM 스킨부스터 셀르디엠은 기존 사업 구조 대비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 셀르디엠은 무세포 동종 진피 기반 ECM 콜라겐 부스터이며, 기존 PN 기반 스킨부스터가 자극을 통한 간접적 콜라겐 유도 방식인 것과 달리 콜라겐을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다. 다운타임이 거의 없고, 시술 텀도 연 2~3회로 길어지며, 시술 편의성과 효능 측면에서 차별성이 뚜렷하다.

출시 초기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강했다. 10월 생산량 약 13,000개가 거의 전량 판매되었고, 회사가 28기(2025.10~2026.9) 기준으로 제시했던 초기 매출 30억~40억원 가이드는 출시 한 달 만에 약 250억~300억원으로 상향되었다. 회사는 2026년 1월 CAPA를 22,000개로, 내년 3월까지 60,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CAPA 6만 개 기준 연 매출 환산치는 700억~800억원 수준이다. 원재료는 기존 피부이식재 공정에서 남는 원료를 파우더화해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원가 구조도 유리하다. 판매는 100% 자회사 민트메디컬이 담당하며, 민트실 영업망(성형외과·피부과 약 2,000곳)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외 진출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일본은 별도 허가 이슈가 없어 병원 직계약으로 즉시 진입 가능하며, 벨라젤과 함께 초기 준비가 진행 중이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의료기기 인증이 필요하며 2년~4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벨라젤 1심 판결(11/25), 재출시 일정에도 영향 주목

11월 25일 예정된 벨라젤 민사소송 1심 판결은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이벤트다. 회사는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며, 5년 이상 이어진 이슈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민감도도 높다. 판결 결과는 공시로 확인되며, 시장에서는 결과에 따른 재무적 영향뿐 아니라 향후 벨라젤 재출시 일정(2026년 3월 내 목표)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9월)	2022A	2023A	2024A	2025F
매출액	745	780	811	883
영업이익	13	-42	6	6
지배순이익	61	-230	-72	-60
PER	18.8	-7.4	-24.3	-78.8
PBR	2.4	3.6	2.5	7.3
EV/EBITDA	27.1	210.9	34.0	84.3
ROE	13.6	-48.6	-12.5	-9.3

자료: 유안타증권



이승은 회장품/유통

seungeun.lee@yuantakorea.com

김도엽 Research Assistant

doyub.kim@yuantakorea.com

NOT RATED (M)

목표주가

-원 (M)

직전 목표주가

-원

현재주가 (11/21)

34,750원

상승여력

-

시가총액	4,700억원
총발행주식수	13,526,367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172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752,442주
52주 고/저	34,950원 / 6,370원
외인지분율	2.71%
배당수익률	0.00%
주요주주	황호찬 외 2인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27.8	351.3	346.7
상대	29.0	306.0	251.9
절대 (달러환산)	23.6	327.7	323.0

[Fig. 1] 한스바이오메드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23.12	24.03	24.06	24.09	제26기	24.12	25.03	25.06	25.09E	제27기(E)
매출액	204	205	208	195	811	199	242	220	222	883
YoY	1	0	13	3	4	-2	18	6	14	9
내수 합계	115	109	106	125	455	118	152	138	153	561
수출 합계	89	96	102	70	356	81	90	82	69	321
뼈이식재	53	54	57	53	216	53	74	72	67	266
내수	38	28	37	33	136	37	48	51	47	184
수출	15	26	20	20	80	16	26	21	20	83
피부이식재	47	48	41	43	179	51	63	74	83	271
내수	44	45	37	40	166	47	58	70	80	256
수출	3	2	4	3	12	3	5	4	3	16
의료기기	84	86	88	77	335	75	76	64	55	270
내수	20	24	20	19	83	22	23	19	17	81
수출	64	62	68	57	252	53	53	45	38	189
실리콘폴리머	2	1	2	1	6	1	1	1	1	5
내수	2	1	1	1	5	1	1	1	1	3
수출	0	0	0	0	1	1	0	1	0	1
영업이익	8	2	7	-11	6	-7	18	0	-5	6
YoY	882	흑전	437	적축	흑전	적전	833	-94	적축	-4
영업이익률	4	1	3	-5	1	-4	7	0	-2	1

주: 한스바이오메드는 9월 결산법인, 자료: 한스바이오메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회사 연혁

- 1999년 설립, 2005년 국내 최초 조직은행 설립
- 근간 사업: 인체조직 사업

사업 전개

- 2008년: 인공 진피 보형물 벨라젤 유럽 CE 인증 획득, 수출 시작
- 2015년~2020년: 국내 식약처 인증, 보형물 위주 영업 전개
- 2020년: 벨라젤 이슈 발생, 벨라젤 매출 급감
- 2020년 이후: 인체조직 + 민트실(리프팅실) 중심 외형 성장
- 2021년: 중국 위고(WEGO) 그룹과 합작법인 레보스 설립

레보스 합작법인

- 목적: 전체 제품 라인업(뼈, 피부, 민트실, 벨라젤) 중국 현지 생산·판매
- 장기 프로젝트, 잠재력 큼, 인허가 관련 이슈로 지연 중

사업장 위치

- 본사: 문정동, 연구소 및 생산시설: 대전

해외법인

- 미국법인: 메인 법인
- 민트실 연간 매출 약 300억원 중 40% 미국법인에서 발생
- 2020년 이후 외형 성장 위주로 수익성 관리 부족
- 올해부터 해외법인 관리 시작
- 유럽법인: 올해 안 청산 예정
- 콜롬비아법인: 채권 관리 중, 채권 정리 후 최대한 축소 운영 예정

국내 계열사

- 한스파마: 합성물질 스킨부스터(ECM 스킨부스터 출시 전) + 화장품
- 한스케어: 인체조직 이식재 국내 영업 담당
- 민트메디컬: 벨라젤, 민트실 담당, 최근 ECM 스킨부스터 셀르디엠 판매
- 에이템즈: 관절염 치료제, 관절강 주사제 개발·판매

지분 현황

-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약 10%(약 135만주) 매도 계획 공시
- 처분 기간: 12월 2일까지 (결제일 기준)
- 매도 방식, 매수인 미정

제품 포트폴리오

- 인체조직: 뼈이식재 + 피부이식재, 전체 매출 약 50%
- 메디컬 디바이스: 대부분 민트실, 전체 매출 약 40%
- 벨라젤: 현재 매출 없음
- 코스메틱: 한스파마 화장품 + 기존 합성물질 스킨부스터

뼈이식재 사업

- 메인 제품: 치과용 골이식재
- 오스템임플란트와 상호 독점 계약(2009년~)
- 올해 계약 연장, 10년 만에 치과형 골이식재 단가 인상
- 분기 매출: 기존 200억원 안팎 → 올해 230억~240억원(단가 인상 효과)
- 내수 매출: 연간 90억원 안팎 → 27기(9월 결산) 100억원 안팎 예상
- 해외 매출: 대부분 오스템임플란트 미국법인
- 27기까지 비슷한 수준
- 28기(2025년 10월~2026년 9월)부터 중국 동종골 이식재 수출 매출 추가

중국 동종골 이식재

- 제품: 익스퓨즈(ExFuse, 정형외과용 골이식재)
- 중국 수출 허가 이미 보유
- 허가 과정 보완 요청으로 중단 → 2025년 7월 재개
- 중앙정부·지방 식약처 컴플레인 처리 중(2025년 11월까지)
- 매출 시작 예상 시점: 연말 또는 늦어도 2026년 초
- 시장 규모: 국내 500억원(한스바이오메드 점유율 50% 1위), 중국 5,000억원(국내 대비 10배)
- 10% 점유만으로도 의미 있는 매출

중국 불법 사체 이슈

- 2024년 8월 발생
- 중국 정부에서 인체조직 원료 전수조사 진행 중
- 당시 중국 인체조직 원재료 업체 연간 원료 매출 약 1,000억원
- 현재 신규 원료 공급 중단, 내수 업체들 재고만 판매 중
- 골이식재 수출 허가: 한스바이오메드 유일 (피부이식재는 엘앤씨바이오)
- 구조적으로 독점 공급 가능

피부이식재 사업

- 벨라셀 HD: 기존 메인 제품
- 유방암 전절제술 트렌드 변화(보형물을 피부이식재로 감싸 부작용 감소)
- 2015년 4월 이후 유방암 전절제술 급여화로 수술 수요 증가
- 매출 빠르게 성장

벨라젠 (파우더형 피부이식재)

- 도너 수급 후 벨라셀 HD용 먼저 채취
- 남은 원재료를 파우더화 하여 입자 크기별 분류(정형외과, 신경외과, 유방외과 등)
- 가장 고운 가루 → 셀르디엠으로 활용
- 기존 폐기 처분되었던 원재료, 제조원가 매우 유리

셀르디엠 (ECM 스킨부스터)

- ECM 기반 무세포 동종 진피 콜라겐 부스터
- ECM: 만 20세 이후 매년 1% 감소하는 피부 필수 성분
- 셀르디엠: ECM 직접 주입

기존 합성물질 스킨부스터 vs 셀르디엠

- PN스킨부스터: 연어 추출 성분, 이물질 자극으로 콜라겐 형성 유도
- 셀르디엠: 콜라겐 직접 주입
- 시술 텀: PN스킨부스터 2~3개월, 셀르디엠 1년 2~3회(6개월 효과 지속)
- 다운타임: 셀르디엠 거의 없음, 시술 후 일상 복귀 빠름

셀르디엠 실적

- 출시일: 2025년 9월 22일
- 28기(2025년 10월~2026년 9월) 목표 매출: 30억~40억원
- 출시 한 달 후 목표 매출 상향: 250~300억원
- 10월 생산량: 약 13,000개(거의 전량 판매)
- 2026년 1월 CAPA 확대: 22,000개
- 2026년 CAPA 기준 연간 매출 환산: 약 250~300억원

셀르디엠 이익률

- 출시 한 달로 확정 어려움
- 한스바이오메드: 100% 자회사 민트메디컬 통해 병원 직판

레보스(중국 합작법인)

- 원래 2024년 내 허가 예상
- 중국 불법 사체 이슈로 약 1년 반 지연
- 예상 시기: 2026년 상반기
- 중국 현지 도너 조달 계획
- 불법 사체 이슈로 중국 식약처 원료에 민감
- 전체 라인업(뼈이식재, 피부이식재, 민트실, 벨라젤) 허가·판매 준비 완료 가정 시
초년도 매출: 약 3,000억원
- 잠재력 크나 인허가 지연으로 단기 가이드스에서 제외

민트실(리프팅실)

- 100% 생분해성 단백질
- 시술 후 6개월~1년 후 체내 완전 흡수
- 국내, 미국, 유럽, 중국 리프팅용 허가 보유
- 경쟁사: 대부분 봉합사(수술용 실)로 판매, 리프팅 효과 직접 홍보 불가
- 한스바이오메드: 리프팅용 허가로 임상 자료, 논문 등 객관적 자료 활용 가능

민트실 제조 방식

- 봉합사 제품: 돌기 커팅 방식, 물리적으로 얇아짐, 내구성 · 리프팅력 떨어짐
- 민트실: 프레스 몰딩 방식, 한 번에 찍어냄, 내구성 우수, 리프팅력 뛰어남
- 단가: 경쟁사 대비 15~20% 높은 프리미엄

민트실 영업 전략

- 기술 난이도 높음, 교육 필수
- 키 닥터 선정, 교육 활발히 진행
- 뷰티다운 플랫폼: 제품 + 교육 패키지 판매
- 제조원가 낮음, 광고 · 마케팅비 비중 높아 수익률 다소 낮음

민트실 시장 및 매출

- 리프팅실 시장: 폭발적 성장 아님, 꾸준한 점진적 성장
- 미국: 최근 많이 감소
- 경쟁사 진입, 저가 전략으로 점유율 잠식
- 경쟁사 최근 영업난, 대리점 철수, 직접 영업 전환
- 27기 기준 미국법인 매출 저점 판단, 미국법인 인력, 마케팅 전략 재편
- 회복 시간 소요 예상
- 내수: 꾸준히 성장, 최근 중국, 태국, 중동 유의미한 성장률

민트실 중국 시장

- 2024년 5월 출시
- 26기: 88억원, 27기: 15억~20억원 예상, 28기: 30억~50억원 예상
- 중국 리프팅실 시장 규모: 약 1,000억원
- 국내: 200억~300억원, 한스바이오메드 점유율 40% 1위
- 기존 중국 내수 업체 1곳 허가 보유
- 수출 업체: 한스바이오메드 유일
- 최근 중국 내수 업체 4곳 허가, 리프팅실 시장 진입, 시장 관심 증가

벨라젤 재출시

- 2020년 이슈: 허가와 다른 원재료 사용(허가 절차 누락)
- 원료 자체: 일반적 이식 가능 원재료, 원료 자체 문제 없음
- 식약처 허가: 거의 마무리 단계
- 현재 원료사와 양산 물량 수급 시기 조율 중
- 출시 시기: 2026년 3월 내
- 출시 지역: 국내 + 일본 동시
- 일본: 허가 이슈 없음, 병원 직계약 형태로 즉시 진입 가능
- 초년도 매출: 약 100억원(국내 70억~80억원, 일본 20억~30억원)
- 메인 판매 당시 OPM: 20~30%, 검증된 수익성

벨라젤 민사소송

- 1심 판결일: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 5년 이상 소송 진행
- 소송 결과 예측 불가, 대기 중
- 결과는 공시로 확인 가능

실적 가이드스

- 26기 목표: 매출 811억, 영업이익 6억원
- 내부 BEP: 800억원
- 27기 목표: 26기 대비 약 10% 성장
- 27기 매출: 800억원 후반 예상
- 27기 영업이익: 10억원 중반 예상
- 28기 목표: 27기 대비 매출 20% 성장, OPM 5~10%
- 주의: 28기 가이드스는 셀르디엠 매출 30억~40억원 기준
- 상향 조정된 셀르디엠 매출 약 250~300억원 미반영

Q&A

Q: 셀르디엠 수출 가능 국가는?

A: 국내는 인체조직 인증, 수출은 의료기기 인증이 필요하다. 의료기기 인증은 시작했으며 2년 이상 걸린다. 일본은 허가 이슈가 없어 병원 직계약으로 즉시 진입 가능하며 벨라젤과 함께 준비 중이다. 중국은 의료기기 인증이 필요하며 2년 이상 걸린다. 미국은 FDA 인증 등이 필요해 3~4년 소요된다.

Q: 광고를 직접적으로 안 하는 쪽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A: 상업적인 B2C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직접 마케팅하는 것은 상관없다.

Q: 셀르디엠 CAPA 투자 시 자본만 계속 넣으면 회사는 증설 없이 계속 늘어날 수 있나?

A: 생산 캐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다. 인력 충원이 가장 중요하며, 기존 피부이식재 생산 인력 대비 거의 100% 충원이 필요하다. 대규모 설비는 필요하지 않다.

Q: 도너 수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A: 전체 캐파를 늘리고 있다. 2026년 1월 기준 22,000 개로 확대하지만, 셀르디엠 출시 전부터 분기 매출이 200 억원 안팎에서 230 억~240 억원 수준으로 올라와 전체 캐파 확충 계획이 있었다. 내년 3월까지 늘릴 예정이며, 기존 캐파가 약 1,100 억원인데 최대 2 배까지 늘려 2,000 억~2,200 억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내년 3월 기준 셀르디엠 캐파는 약 60,000 개가 될 것이다. 이것이 판매량과 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60,000 개 기준으로 연간 매출 환산 시 약 700 억~800 억원 수준이다. 이 수준까지는 원료 수급에 문제가 없다.

Q: 최근 오스템에서 지분을 팔고 있는데, 이것이 오버행과 관련해서 회사와 소통한 부분이 있나?

A: 따로 소통하고 있는 것은 없다. 원래는 블록딜로 처리한다고 알고 있었으나,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다.

Q: 일본, 중국 쪽에서 영업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나?

A: 중국은 기존 민트실 총판이 있어 그쪽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확정은 아니다. 중국은 타임라인이 너무 길게 남아 추후 확인해야 한다. 일본은 기존 벨라젤을 예전에 판매했던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내부적으로 일본 영업팀을 신설해서 벨라젤과 셀르디엠을 함께 시작할 예정이며, 일본 쪽에 힘을 실으려고 하고 있다.

Q: 국내 영업에서 컨택할 수 있는 병원 숫자는?

A: 확보한 거래처 수는 아직 집계가 안 됐다. 적어도 분기까지는 팔아봐야 집계할 수 있다. 민트메디컬에서 민트실 관련 거래처 확보 수가 약 2,000 곳(매출 발생 기준)이다. 거기서 우선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병원 위주, 지역적으로 수도권 위주로 먼저 시작하고 있다. 거래처 집계 수는 분기 정도 지나야 말씀드릴 수 있다.

Q: 향후 출시 예정된 ECM 스킨부스터는?

A: 도프라는 회사에서 주베룩과 함께 최근 출시했다고 알고 있다. CG 바이오(피부이식재 시장 점유율 2위, L&C Bio 1위, 한스바이오메드 3위)에서 스킨부스터를 출시한다고 들었다. 도프는 컨셉이 조금 다른 것 같으며, 용량도 줄이고 가격도 줄여서 나온다고 들었다. 정확하게는 모른다.

Q: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면 시장을 많이 뺏기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

A: 인체조직, 특히 피부이식재는 영업망이 중요하다. 원료 측면에서 차별점을 가져가기 어렵다. 스킨부스터는 성형외과, 피부과 영업망을 보유해야 한다. 한스바이오메드는 민트메디컬(자회사)을 통해 민트실로 이미 성형외과, 피부과 영업망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다. 국내 점유율 1 위, 미국 1 위, 태국 2 위, 중국은 작년에 진출해서 잘 팔고 있다. 영업적으로 레퍼런스가 확실하다. 신규 진입 업체들이 이런 영업망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부분이 진입 장벽 역할을 한다.

한스바이오메드 (042520) 추정재무제표 (K-IFRS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결산(9월)	2022A	2023A	2024A	2025F	2026F
매출액	745	780	811	883	1,183
매출원가	288	329	294	327	380
매출총이익	457	451	517	556	803
판매비	444	493	511	550	670
영업이익	13	-42	6	6	133
EBITDA	62	10	60	60	187
영업외손익	22	-194	-73	-56	-13
외환관련손익	19	-2	-10	-30	-5
이자손익	-61	-54	-17	-14	-14
관계기업관련손익	0	-19	-22	10	7
기타	65	-119	-23	-21	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5	-235	-66	-50	120
법인세비용	-14	6	12	15	17
계속사업순이익	49	-241	-78	-64	103
중단사업순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49	-241	-78	-64	103
지배지분순이익	61	-230	-72	-60	110
포괄손익	44	-241	-72	-58	110
지배지분포괄이익	57	-231	-65	-53	100

주: 영업이익 산출 기준은 기존 k-GAAP 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만 차감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결산(9월)	2022A	2023A	2024A	2025F	2026F
영업활동 현금흐름	-43	-37	18	2	43
당기순이익	49	-241	-78	-64	103
감가상각비	45	48	50	50	50
외환손익	-12	12	11	30	5
중속,관계기업관련손익	26	19	39	-10	-7
자산부채의 증감	-64	-52	-41	-31	-136
기타현금흐름	-88	178	37	28	28
투자활동 현금흐름	32	33	-66	-15	-31
투자자산	72	51	-38	-5	-20
유형자산 증가 (CAPEX)	-40	-19	-26	-10	-10
유형자산 감소	1	1	1	0	0
기타현금흐름	-1	1	-3	0	-1
재무활동 현금흐름	14	-8	59	-18	-14
단기차입금	-15	27	-50	1	4
사채 및 장기차입금	41	-147	-119	-3	-2
자본	0	273	243	0	0
현금배당	0	0	0	0	0
기타현금흐름	-12	-162	-16	-16	-16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2	-2	1	-27	32
현금의 증감	5	-14	11	-58	30
기초 현금	71	75	61	73	14
기말 현금	75	61	73	14	45
NOPLAT	18	-43	7	8	133
FCF	-83	-57	-8	-8	33

자료: 유안타증권

주: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2. PER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주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3. ROE/ROA의 경우, 자본자산 항목은 연초,연말 평균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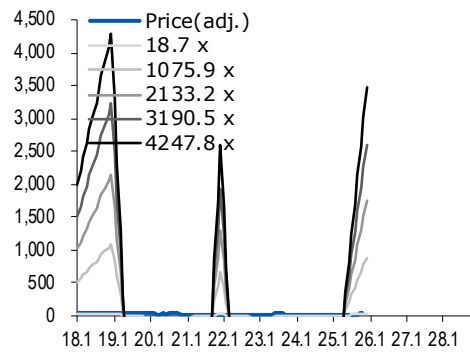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결산(9월)	2022A	2023A	2024A	2025F	2026F
유동자산	544	504	497	476	664
현금및현금성자산	75	61	73	14	4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00	129	120	130	175
재고자산	269	278	283	308	413
비유동자산	773	720	720	681	657
유형자산	469	442	435	396	356
관계기업등 지분관련자산	62	44	53	57	77
기타투자자산	2	2	2	2	3
자산총계	1,317	1,224	1,217	1,157	1,321
유동부채	744	653	501	515	573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73	95	109	118	159
단기차입금	273	273	343	343	343
유동성장기부채	0	0	0	0	0
비유동부채	98	72	45	30	25
장기차입금	0	0	0	0	0
사채	0	0	0	0	0
부채총계	842	724	546	544	598
지배지분	456	491	669	615	732
자본금	51	61	68	68	68
자본잉여금	323	586	822	822	822
이익잉여금	153	-78	-150	-209	-99
비지배지분	18	8	2	-2	-9
자본총계	475	499	671	613	723
순차입금	501	462	291	347	319
총차입금	653	533	364	362	364

Valuation 지표	(단위: 원 배: %)				
결산(9월)	2022A	2023A	2024A	2025F	2026F
EPS	608	-2,047	-535	-441	816
BPS	4,742	4,244	5,149	4,738	5,636
EBITDAPS	613	93	445	443	1,381
SPS	7,370	6,930	6,005	6,528	8,746
DPS	0	0	0	0	0
PER	18.8	-7.4	-24.3	-78.8	42.6
PBR	2.4	3.6	2.5	7.3	6.2
EV/EBITDA	27.1	210.9	34.0	84.3	26.8
PSR	1.6	2.2	2.2	5.3	4.0

재무비율	(단위: 배: %)				
결산(9월)	2022A	2023A	2024A	2025F	2026F
매출액 증가율 (%)	26.0	4.8	4.0	8.8	34.0
영업이익 증가율 (%)	흑전	적전	흑전	-4.1	2,116.7
지배순이익 증가율 (%)	흑전	적전	적지	적지	-284.9
매출총이익률 (%)	61.4	57.8	63.8	63.0	67.9
영업이익률 (%)	1.7	-5.3	0.8	0.7	11.2
지배순이익률 (%)	8.3	-29.5	-8.9	-6.8	9.3
EBITDA 마진 (%)	8.3	1.3	7.4	6.8	15.8
ROIC	2.6	-5.6	1.0	1.1	15.6
ROA	4.7	-18.1	-5.9	-5.0	8.9
ROE	13.6	-48.6	-12.5	-9.3	16.4
부채비율 (%)	177.5	145.0	81.3	88.8	82.8
순차입금/자기자본 (%)	109.8	94.0	43.6	56.4	43.6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0.2	-0.8	0.4	0.4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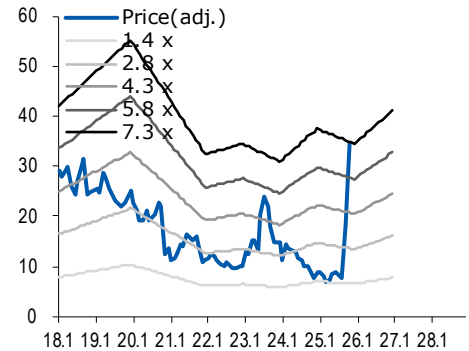
P/E band chart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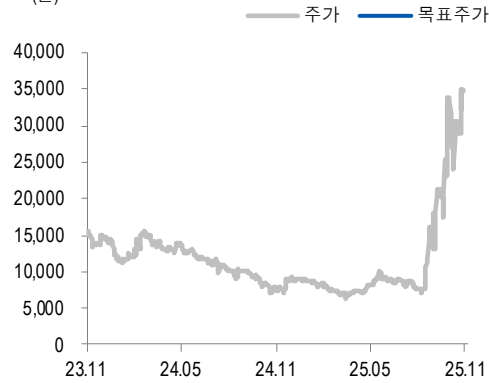
P/B band chart

(천원)



한스바이오메드 (04252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원)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11-24	Not Rated	-	1년		
2025-10-21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4.2
Hold(중립)	5.8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5-11-24

※해의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이승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